

## 오레사마가 되어가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에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산재해 있다는 것에 특별한 불안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고 태연할 수 있다. **무지한 채 살아가는 것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이 ‘공부로부터의 도피’라는 논제를 고찰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한 권에 책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이 책을 소개한다. 스와 테츠지의 《오레사마<sup>1)</sup>화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다지 서평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지도 못했다. 스와 선생은 ‘프로 교사회’의 대표로 오랫동안 공립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현장 출신이다. 선생은 1980~1990년대에 걸쳐 일본의 학교가 완전히 바뀌었고, 아이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있을 법한 일들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하기 곤란한 사례들이 많다. 나는 기성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보다는 새로운 논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례가 지적인 면에서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스와 선생이 제시한 것은 그런 사례들이었다.

예를 들면 교사가 교실에 들어갔는데 떠드는 학생이 있다. 수업을 시작해도 몸을 옆으로 돌린 채 계속 떠들고 있다. 교사가 “떠들지 마라!”고 주의를 준다. 그러자 교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이 씨, 짜증 나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정말로 화가 났다. “듣고 있는데 왜 주의를 주는 거예요?” 라며 대든다. 교사는 “그건 네가 지금 떠들고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생 본인은 “수업은 듣고 있어요.” 라고 우긴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전국에 중. 고등학교에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교사에게 발각되었다. 교사가 “너 담배 피웠지?”라고 하자 담배를 발로 끄면서 “피우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한다. 지금 눈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면서 피우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예는 시험 때 커닝을 한 한생이 있었다. “이거 커닝 페이퍼지?” 라고 교사가 지적해도 학생은 “그딴 거 안 봤어요.” 라고 우긴다.

분명히 예전의 불량스러움하고는 다르다. 과거 불량학생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있었다. 나쁜 짓을 하다가 적발당하면 일단 잘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달라졌다. 요즘 학생들은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한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교사와 학생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런 일 없다” 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한다. 이런 우기기 태도가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퍼졌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유행하고 있다고 미디어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극히 짧은 시간에 전국에 중. 고등학교에서 학

---

1) **역주** : 오레사마おれ様는 일인칭의 인칭대명사로 화자 자신인 나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오레사마가 되어간다는 말은 자기기준의 절대화, 비대화한 자기중심적 가치관이나 행동 패턴과 같은 경향을 의미한다.

생들이 하나같이 우기기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이 최근에는 어른 세대에게까지 퍼졌다. 1980년대에 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40대의 어른이 되었을 터이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유효성을 경험적으로 실증한 교섭술을 현재에도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뇌물사건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자가 해명하는 뉴스를 흔히 보게 된다. 대개가 처음에는 “소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뚝뚝한 답변을 한다. 고발당하고 나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일축한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 한발 후퇴하고, 하나씩 죄를 인정하다가 막판에 가서야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인다. 이런 과정을 텔레비전에서 지켜올 정도로 봐왔다. 조직의 신뢰성을 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도 법에 불필요한 수고를 끼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사죄하면 될 것을 어찌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지 의아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어릴 적부터 확고한 증거를 들이대며 비행을 추궁해도 하지 않았다고 버티는 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습관화해 왔기 때문에 다른 대응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학교 이야기로 돌아가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스와 선생은 알고 지내는 교사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벌인 끝에 정리를 한 것 같다. 이 결과는 스와 선생의 통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등가교환을 하려는 것 같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 부분을 잠시 인용해 보겠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위에서 인정하는 마이너스 부분과 교사가 내릴 처분을 ‘등가교환’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 그 자체를 없애든가, 가능한 축소하는 길을 선택한다. 이후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일으키는 ‘사건’의 전개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아간다(지금도 그렇다).”

스와 테츠지 《오레사마화하는 아이들》

이 ‘등가교환’이라는 말로 아이들의 행동을 해독하고자 했던 스와 선생의 분석은 대단히 날카롭다. 이 개념을 단서로 ‘공부로부터 도피’에 이르는 아이들의 변화를 지금부터 밝혀 보자고 한다.

## 이거하면 뭐가 좋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은 누구나 히라가나와 카타가나, 산수, 로마자 등을 배운다. 1학년 교실에서 히라가나를 막 가르치려는데 누군가 손을 번쩍 든다.

“선생님, 이걸 배우면 뭐가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는 사람들은 어릴 적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간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이걸 배우면 뭐가 좋아요?” 와 같은 매우 진보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오면 첫 질문으로 “이걸 배우면 무슨 득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 아주 냉혹하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냄새가 폴폴 나는 질문을 한다. 확실히 이 질문은 일리가 있다. 아이들에게 40분이든 50분이든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책에 필기하는 일은 일종의 ‘고역’ 이다. 아이들은 이 ‘고역’을 교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나 ‘안내’라는 형태를 취한 ‘화폐’를 교사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등가교환’하는지를 아이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만큼 지불하는데 선생님은 무엇을 줄 건가요?” 라고 아이들은 묻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교사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할 수가 없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질문이 아이들한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교육제도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이라는 말을 지금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은 틀렸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의무’같은 것은 없다.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이다.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은 부모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이 권리에 대해 당사자인 아이들 쪽에서 “어째서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줄은 일본국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명을 제대로 잘 해주면 권리를 행사하겠지만, 설명이 이해가 안 가면 교육 받을 권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아이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째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어른들은 그런 질문이 있을 줄 상상도 못하고 말문이 막혀버린다. 이것은 어른들로서 보이는 당연한 반응일 터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 일본 헌법 제 25조 ‘생존권’에 대하여, “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하나요?”라고 물어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말문이 막혀버릴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그건 말이지……” 하면서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술술 해내는 교사가 있다면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경제성과 합리성을 동기로 부여하는 아이들을 학습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다. 그들은 “공부를 하면 이런저런 ‘좋은 점’이 있단다”라는 말로 아이들을 실용적으로 유도한다. 공부를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존경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안 출신’을 배우자로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그런 어른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교사와 부모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한다.

아이들에게 “공부는 왜 하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린 제대로 된 교사, 제대로 된 부모가 오히려 소수이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 자체가 ‘예상 밖이었다면’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른들 역시 그런 질문은 당연하고, 그 질문에 아이들도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시초이자 가장 큰 요인으로, 애초부터 단춧구멍을 잘못 끼웠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 중학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평론가들이 할 말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다.(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그 도시의 전설이 되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할 말을 잃어버렸어야 하고 또 그것이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질문도 세상에는 있게 마련이다. 만약 할 말을 잃은 것만으로 그 중학생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 중학생의 목을 조르면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해볼래?” 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다.

세상에는 전쟁과 재해로 배울 기회 자체가 박탈당한 아이들이 무수히 많다. 다른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절실히 원하는 수억의 어린이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만이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입에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일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나요?”라고 묻은 중학생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초등학생은 ‘자신이 배움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이 ‘예상 밖’의 질문을 입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지금의 어른들은 단호하게 그런 질문은 “있을 수 없다”고 물리치지 못한다. 말문이 막혀서 허둥대거나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수지타산을 동기부여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 한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한 질문이 어른들을 아연실색케 하거나 또는 유치한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없는 답변을 끌어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고 만다. 이것은 실로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성취감을 아이들에게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초로 성공했던 기억으로 인해 아이들은 이때부터 사사건건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이것을 하면 나한테 어떻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 대답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일치감치 체득한다. 이렇게 하여 ‘등가교환 하는 아이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 됐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어째서 아이들은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라는 실용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스와 선생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 적겠다.

“우리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돈이 들어가는 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보 미디어’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생활도 처음이다. 돈이 돈을 낳는 경제구조 속에 완벽하게 멀리 들어가 있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자립심’(어엿한 자기 역할)을 체득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 사이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소비주체’로서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이제 경제 구조가 보내오는 메시지를 여과 없이 곧바로 받고 있다(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가 ‘근대’를 가르치고자 ‘생활주체’나 ‘노동주체’로서의 자립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은 어엿한 ‘소비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하고 있다. 이미 경제적인 주체인데 학교에 들어가서 새삼스레 교육에 ‘객체’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내키는 일은 아닐 것이다.”

《오레사마화하는 아이들》

이 부분은 과거 10년 동안 읽었던 교육 관련 글 중에서 나에게 가장 계몽적이었던 내용이다. **아이들은 이미 취학 전에 소비주체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있다. 바로 그렇다.**

지금 아이들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이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관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노동을 통해 들어갈 것인가, 소비를 통해 들어갈 것인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어렸을 적 벌써 40년도 더 된 이야기이겠으나, 아이들이 사회 활동에 참가하는 길은 먼저 노동주체로서 자기를 세우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무능력자인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가사노동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밥그릇을 부엌까지 갖다 놓거나, 마당을 쓸거나 화초에 물을 주거나,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 놓거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던 일 중에서 어린아이가 부분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그 일들을 아이가 대신한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이 분담해야 할 가사노동을 사소하게나마 경감해 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고맙다” 내지는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해 준다. 아이들은 그 칭찬이 기쁘고 자랑스럽다.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최소의 사회관계 속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함으로써 비로소 유용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았다. 가족에게 작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감사와 인정을 보상으로 획득하면서 어린아이의 정체성을 차츰 다져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사회화를 시작하였다.

이윽고 가사노동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의 사회활동에도 아이들은 참가하는데, 노동을 하고 타인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면서 이를 통해 감사와 사회적 승인이라는 대가를

받는 교환 행위를 자기 정체성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가사노동의 어린 분담자로서 사회관계 속에 등록을 함으로써 아이들은 노동주체로 자기를 세운다. 아니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적어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의 어린이들은 누구나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노동주체로 출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뭇 다르다. 지금 아이들은 노동주체라는 형태로 사회적인 승인을 받아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일을 못한다. 대부분 그럴 기회가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가사노동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다. 가사라는 게 그다지 생산성이 있는 일이 아니다. 청소나 빨래와 같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집 안이 엉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은 남아 있겠지만, 노동에서 일종의 유희가 포함된 것이나 성취감을 가져오는 것, 사회 훈련이나 자연학습 등과 연결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남아 있지 않다. 개를 산책 시키거나 화초에 물을 주거나 풀 뽑기와 같이 일상의 자연과 연결되는 작업에는 많은 적든 아이들이 시간을 잊고 열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 찾기란 힘들다.

그러므로 부모들도 시키고 싶어도 아이들에게 가사노동을 시킬 수가 없다. 시킬 일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아이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함으로써 부모에게 작은 선물을 한다든가, 집이라는 시스템에 작은 힘이나마 공헌하고 있다는 실감을 지금 아이들은 가질 기회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아이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집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에게 할당된 공간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이다. 나는 이렇게 사는 가정이 매우 많다고 본다. “됐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엄마들의 노기 먼 목소리가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마” 식의 금지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던 말이었다. 설령 어린아이의 미약한 도움일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며 그 고사리 같은 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일본 속담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바쁠 때가 종종 있었다.

이제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할 만한 생산 활동은 거의 없다. 반면의 아이들이 소비 활동에 참가하는 일은 일찍부터 이루어진다.

## “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소비주체로서 자기를 확립할 것을 거의 제도적으로 강제한다. 원인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은 자녀를 적게 낳은 데 있다. 그 결과 부부에 자녀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아이에게는 일명 ‘여섯 개의 주머니’, 그러니까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의 여섯 개의 주머니에서 용돈이 끊이지 않고 운

택하게 공급된다. 서너 살에 벌써 지폐를 들고 물건을 사러 가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 세대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사회적 활동이 노동이 아니고 소비였던, 다시 말해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경험을 하기보다 먼저 돈을 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반대로 지금 아이들은 아마도 거의 절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사회경험이 물건 사기였을 것이다.

나는 이 첫 경험의 차이가 결정적이고 본다. 아이들이 생전 처음으로 물건을 샀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편의점 계산대에 돈을 내면 점원은 “어서 오십시오”라는 앵무새 같은 인사말과 함께 사는 사람이 네 살짜리 꼬마든, 스무 살 청년이든, 여든 살 노인이든 구별 없이 그에 상응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해 준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네 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틀림없이 짜릿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관계의 장에 뛰어 들었을 때 네 살짜리 어린 아이를 교섭 상대로 대등하게 대우해 줄 어른은 없다. 그런데 **돈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의 나이나 식견, 사회적 능력 따위의 속인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쓰는 돈의 과다만이 문제가 될 뿐 누가 돈을 쓰는지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돈의 투명성’이라는 특권적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이 거의 없는 어린아이가 여기저기서 쥐어주는 용돈을 가지고 소비주체로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느꼈을 소감은 **범 밖의 전능성**이었을 것이다. 어린아이라도 돈만 있으면 어른과 대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전능성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결단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질적 것이었다.

소비하는 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아이들은 극히 인생 초기에 ‘돈의 전능성’을 경험한다. 출발선에서 받았던 각인의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본다. 이 각인은 단순히 배금주의 경향이 각인되었다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 아니 소비주체로 나오는 한, 사는 주체의 속인적 성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문제는 돈의 과다가 아니다. ‘사는 사람’이라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나는 설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소개만 하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어엿한 한 사람의 선수로 시장에 참가할 것을 허락한다. 이 경험이 가져오는 짜릿한 쾌감은 정말 중요하다. 어린아이가 한번 이 쾌감을 맛보았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아이들은 이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사는 사람’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무엇보다 상대와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자기를 소비주체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교육서비스를 사는 사람’이라는 위치를 무의식중에 선점하고자 한다. 아이들은 마치 경매에 참가한 부호들처럼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교단 위의 교사를 거만하게 바라본다.

“당신은 뭘 팔 건데? 마음에 들면 사주지.” 이 말을 교실 용어로 바꾸면, “히라가나를 배우는 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가 된다.

등가교환을 하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는 사람은 자기가 흡사 살 상품의 가

치를 숙지하고 있다는 듯 행동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으나, 인간은 그 가치를 모르는 상품은 사지 않는다. 우리는 상품을 살 때 여러 개의 유사 상품을 놓고 사양과 성능, 가격 등을 비교하여 **그 상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난 후에야 돈을 낸다.** 바로 그렇다. 카탈로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상품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현명한 소비주체가 된다. 소비주체로 인생을 시작하나다는 말은 이런 것이다.

소비주체는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무엇보다 먼저 상품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상품이 약속한 서비스와 기능이 지불하는 대가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이 정도면 거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비로소 돈을 내고 상품을 가져간다. 소비주체에게 **‘용도와 유용성이 이해가 안 되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는 상품은 처음부터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사에게 “히라가나를 배우면 뭐가 좋아요?”라고 묻는 아이는 소비주체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상품을 사서 쓰면 뭐가 좋은가?”라고 묻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소비주체는 ‘가치와 유용성’에서 이해가 가는 상품은 당연히 “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교육의 역설

있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질문을 할 때 “이 상품을 사면 뭐가 좋은가요?”와 같이 반드시 수사적인 표현으로 말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상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유용성(또는 무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고, “그 상품은 흥미 없어요.” 라는 식으로 관심 없는 척해야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상품이 어디에 소용되는지(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라는 식의 말이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 장소에서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협상술임을 어린 소비주체는 이미 완전히 터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필요 없어요. 무슨 쓸모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지극히 논리적인 대응이다.

이 질문으로 일종의 전능감을 어린아이는 갖는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것은 곧 지금까지 인류가 부지런히 쌓아올렸던 지적 구축물을 단박에 걷어차는 거나 다름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는 어안이 병병해져서 할 말을 잃고, 그러다 아이의 눈치를 살피면서 “제발 공부해 줘” 라고 부탁이나 하듯이 임시방편으로 이익이 될 만한 이유들을 늘어놓는다. 이 광경은 시장에서 결함 있는 상품을 팔아치우고 고객의 팔목을 붙잡고 “싸게 해줄 테니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처럼 아이들 눈에 비칠 것이다. 게다가 더욱 위태로운 점은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중에서 그 의미와 유용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의 장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중 상당부분은 아이들이 그 의미와 유용성을 아직 잘 모른다. 당연한 말이겠으나, 교육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아직 잘 모른 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로는 교육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계량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역설은 **교육이 제공하는 이익은 자기가 어떤 이익을 받고 있는지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이 끝날 때까지 말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소비주체로 학교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애당초 그런 역설이 학교를 성립시키는데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옛날 아이들, 다시 말해 노동주체로 출발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집에서 하는 ‘노동’은(둘 다 영어로는 work가 되지만) 동일한 것이었다. 열심히 ‘work’하면 가족과 지역 사람들로 부터 ‘유용한 사회적 존재로 승인’받는다는 직접 보상을 약속받았다. 그러므로 “work를 하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 따위가 아이들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사노동을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이 어떤 의미와 유용성을 가지는지 먼저 알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 **의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집안일을 하면 부모님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위하여 서툰 솜씨로 노동주체로서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에 반해 소비주체로 출발한 아이들은 자기 앞에 놓인 사물을 항상 ‘상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홍정’하려고 한다. 최소의 화폐로 최대의 상품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 보통의 상점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라면 화폐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 ‘불쾌함’이라는 화폐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에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지불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화폐’를 내지 않으면 ‘사는 사람’의 자격으로 등가교환을 하는 현장에 설 수 없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엇으로 화폐를 대용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폐를 물 쓰듯 쓸 수 없는 이상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불쾌함이다.

50분 수업을 조용히 참으며 듣는 작업은 아이들에게는 ‘고역’이다. 그들은 고역이 가져오는 ‘불쾌함’을 ‘화폐’로 바꾸어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와 등가교환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환 장소에 내놓을 수 있는 화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학교에 불쾌함을 견디기 위해 온다. 교육 서비스는 아이들의 불쾌함과 맞바꾸어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실은 불쾌함과 교육 서비스의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 된다.

아이들은 당연히 교실에서 익숙한 ‘홍정’을 벌이게 된다. 자기의 ‘불쾌함이라는 화폐’를 최고의 교환율로 ‘교육 상품’과 교환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50분 수업을 듣는다는 불쾌함의 대가로 거기서 제시되는 교육 서비스가 질, 양 모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홍정’을 하게 된다. 가령 그 수업의 가치가 ‘50분간의 집중’과 등가라는 판단이 서면 50분 수업 중 10분 정도는 교사에게 시선을 주고 수업 내용을 공책에 적는다. 그리고 나머지 40분간의 ‘불쾌함’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40분간은 옆의 짝과 속삭거리거나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잠을 자거나 아무튼 소비자인 아이들에게 ‘불쾌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행위로 충당한다. 아니 ‘충당한다’는 말보다 오히려 ‘충당해야 한다’는 쪽이 더 정확하다.

힘들게 10엔을 깎아서 사기로 했던 상품에 20엔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거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이 수업은 10분 정도 집중할 가치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면 나머지 40분은 수업을 듣지 않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잡담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스와 선생이 예로 들었던, 잡담을 할 때 교사에게 지적받고 분연히 “듣고 있다가니까요!”라고 대답한 학생은 아마도 진짜 화가 났으리라.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단순히 나태와 부주의로 지적받아야 하는가’라고.

“수업받기 싫으면 학교에 오지 마”라고 교사가 말했다면 잡담하던 아이는 격노했을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가게에서 상품을 보면서 어떻게 가격을 깎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가에 사지 않을 거면 가게에 오지 마”라고 면박을 당한 쇼핑객과 같은 기분이 들 터이기 때문이다. 가격은 파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파는 쪽이 가격을 높게 매기기 때문에 사는 쪽이 가격을 깎는다. 엄정한 협상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등가교환을 하려는 현명한 소비자의 노력을 어째서 인정하지 않는가. 아이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담배와 커닝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들켰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피지 않았어요”라고 말한들 소용없다. 하지만 담배를 비벼 보면서 “피지 않았어요”라고 주장하면 사실의 확실성은 조금이나마 줄어든다. 5퍼센트가 되었든 10퍼센트가 되었든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사실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면 **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아이들은 그걸 노리는 것이다. 창문 밖으로 버리거나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해서 증거품을 없애버린다면 설령 교사가 현장에서 보았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문제를 교장 앞에서든 부모 앞에서든 설명할 때 교사가 하는 증언의 신뢰성을 미묘하게 깎아내릴 수 있다.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도 일단은 부인해서 조금이나마 사실성을 깎아내리고 학교에서 받을 벌칙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방법과 똑같다. 아이들은 소비자 마인드로 학교 교육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대학 4학년생이 교육 실습을 하러 갈 때 교수인 나도 실습 학교에 인사를 하러 간다. 그때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격렬하게 한다. 나는 그때마다 놀라곤 한다.

수업을 시작하면 예나 지금이나 “차렷! 경례!”는 변함없이 하고 있지만, 이 호령을 붙이는 반장이 교사의 시작 신호를 받고 느릿느릿 일어나서는 마지못한 목소리로 호령을 붙이면 반 학생들은 반장보다 더욱 늘어진 자세로, 인간공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늘어진 자세로, 일어나 마지못해 인사하고 느릿느릿 자리에 앉는다. 이 정밀한 신체기법은 매번 나를 감동시킨다. 이 자세는 너무 완벽한 탓에 자칫 일을 그르쳐 교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오해 따위는 사지 않도록 학생들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단순한 나태였다면 인간은 이 정도로 원만하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원만하게 움직이는 쪽이 물론 근육과 골격에 미치는 부담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학생들이 생리적으로 이완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기호적인 신체 운용이다.

그들은 “선생님이 앞으로 제공할 교육 서비스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라고 온몸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이것은 시장에서 “자, 이제부터 흥정에 들어갑니다”라며 준비 태세를 갖춘 소비자의 자세와 똑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장에서 고객이 처음으로 취하는 자세는 그 상품에 대하여 얼마나 구입할 의사가 없는지를 연극적으로 표현해 보이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위를 학생들도 하고 있다.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을 참고 들어주고 있으므로 “내가 지불할 ‘불쾌함이라는 대가’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 그렇게 아세요”라고 교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 10퍼센트의 집중이야 못할 것도 없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이것은 분명한 거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수업을 빼먹으면서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 그것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거나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영어에, 수학에, 고문에, 역사에도 다소의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도 잘 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불쾌함에 대하여 등가인 교육 서비스’만을 요구할 뿐이다. **문제는 등가교환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적절한 등가교환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은 비즈니스 마인드에 입각한 주장이며, 따라서 아이들의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에 딱 들어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아이들과 그 부모가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그런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일수록 아이들의 수업 태도는 진지하다’는 법칙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으레 고액의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사회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다는 식으로 설명하겠지만, 나는 달리 생각한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겠으나, 부모가 미리 고액의 수업료를 낸 경우에는 아이들은 교실에서 ‘불쾌함이라는 화폐’를 과시할 의무를 면한다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이런 태도가 일본 사회에 정착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약간 위험한 가설을 세운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다. ‘공부로부터의 도피’라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이 가설은 니트NEET족<sup>2)</sup>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조명해 줄 것이다.

## ‘불쾌함’이라는 화폐의 기원

불쾌함은 화폐로 유통된다. 도대체 아이들은 등가교환의 원칙을 어디서 배웠을까? 아마도 아이들은 등가교환하는 방법을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방법을 통하여 배웠다고 본다. 아이들은 ‘타인이 초래하는 불쾌함을 견디는 것’이 가정 내 화폐로 기능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습득한다. 현대 일본의 가정이 화폐 대신에 유통시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화폐’로서 인지하는 것은 타인이 존재한다는 ‘불쾌함’을 견디는 것이다. 가정에서 실제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납득이 갈 것이다.

현대 일본의 전형적인 핵가족에서는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여 벌어오는 수입으로 가계를 꾸린다. 하지만 샐러리맨의 경우, 아버지가 땀 흘려 노동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볼 기회가 없다. 지금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 예전에는 월급봉투가 있어서 월말에 아버지가 월급봉투를 집으로 가지고 오면 그날만큼은 돈가스나 불고기 등 보통 때와는 다른 특별한 음식을 먹었고, 부양해 주는 분에게 온 가족이 모여 감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미풍도 월급이 은행계좌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사라졌다. 아버지가 일해서 가계를 꾸려나간다는 실감은 전후 1960년대 가족들에게 점점 희박해져 갔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버지가 가계의 주요 부담자라는 사실은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와서 온몸으로 표현하는 ‘피로감’, 즉 기호로 표상되는 방법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이, 언짢은 얼굴로 문을 열어서 힘없이 옷을 벗고, 아내와 아

2) **역주** 니트NEET : 영국 정부가 노동정책상 인구 분류로 정의한 말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이다. 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노동후생성의 정의에 따르면, 비노동력 인구 중에서 연령 15~34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미혼이면서 가사노동, 통학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종종 프리터와 혼동되기도 한다. 하지만 프리터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취급받으며, 실업자는 취업을 향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트와 구별된다. 니트는 일반적으로 ‘~할 의욕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들이 건네는 말에도 대답 없이 오로지 자기만의 불쾌함에 사로잡힌 모습에서 가족들은 아버지가 **수많은 불쾌함을 견디고 가계를 꾸리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한다.

사냥꾼인 아버지가 짐승의 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듯이, 농부인 아버지가 곡식과 채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듯, 현대의 샐러리맨 아버지는 노골적인 언짢은 얼굴로 돌아오으로써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다. 이런 이유로 남은 가족들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게 된다. 아내들도, 아이들도 각자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나, 이 자부심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못지않게 언짢은 얼굴을 함으로써 그 노력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주부들에게 가사노동은 글자 그대로 육체노동이었다. 가족들의 옷을 빨래판 위에 놓고 비누로 손빨래를 하고, 빗자루, 총채, 걸레로 집 안을 청소하고, 목욕탕에 물을 길어 나르고, 풍로 하나로 음식을 하고, 우물가에서 쪄그리고 앉아서 설거지를 하고, 줄줄이 사탕 같은 아이들의 옷을 깎고..... 사람 손이 일일이 들어가는 가사는 종종 남편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필적하는 중노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성과를 가족들은 깨끗한 의복과 청결한 집 안과 따뜻한 밥이라는 형태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의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정에 편리한 가전제품이 들어차면서 주부의 가사노동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육아를 제외하면, 가사 중에서 ‘육체노동’에 속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에게서 손을 놓게 된 주부들이 가정에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노동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가족의 존재를 참는 것 이외에는 없다.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현대 일본의 많은 주부들이 남편에게 제공하고 있는 최대의 봉사는 남편의 존재 그 자체를 견디어내는 것이다.** 남편의 구취와 체취를 참고, 식사와 의복을 챙겨주고, 남편의 불만과 짜증을 받아주고, 요구를 하면 잠자리 상대가 되어준다. 이런 일들은 모두 아내들에게 ‘불쾌함’으로 간주된다. 불쾌함의 보상으로 아내들은 재산의 반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아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생산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다. 전적인 보호와 부양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아이들이 가사노동을 하게끔 이끈 것은 이 책무였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에게는 가정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들에게는 단지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해라” 또는 “학원이나 가라”라는 요구가 있을 뿐이다. 어른들의 지시대로 아이들은 보습학원에 가거나 예체능 학원에 간다.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너무 지쳐 말할 기운도 없이, 가족들에게 관심을 보일 여력도 없이, 그저 온몸으로 피로함과 불쾌함을 표현함으로써 아이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하듯이 충분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다는 것을 핑계로 아이들은 불쾌함을 견디고, 집안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다.

가족 중에서 ‘누가 가장 집안에 보탬이 되는가’와 ‘누가 가장 기분 나쁘가’를 기초로 측정한다. 이것이 현대 일본 가정의 기본 규칙이다. ‘불쾌함’카드를 가정에서 가장 많이 휘두르는 사람이 가정에서 자원의 배분과 결정을 할 때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원이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불쾌하고,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패권 경쟁에 열중하게 된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활동에 대하여 “나는 이것이 불쾌해”라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화폐’를 모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이 집의 식구이기 때문에 받는 불쾌함’을 필사적으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